

테마칼럼

정치로 세상읽기

이해론의 논점

빛고리에 살며

영문·문화·미상

암과도 같은 존재, 부정부패



안톤 솔트

이 글을 쓰는 지금 난 조선대학교 본관 건물 앞에 놓인 천막 안에 앉아있다. 조금 쌀쌀한 봄날 아침이지만 최근 9월 여 동안 많은 교수가 자리에 모여 학교 내 비리를 성토했는데 나 또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부패사태가 대학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거니와 이제는 이러한 일이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논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신문문을 보아하니 비단 우리 학교만이 부패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신도 땅에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그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 같아 보인다. 그는 또한 한국에서 민주화가 시작된 뒤로 아들이 비리에 연루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이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며, 나는 이 기회에 한국에서 자주 접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사회 불안이 다시 야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치인들과 그들의 열의에 대한 불신은 유럽에서도 광범해 있으며 내가 보기론 유럽의 젊은 세대는 정치에 전혀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인 1994년의 길거리에는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학생들과 전경 사이에 있었던 데모와 충돌로 어지럽혀져 있기 일수였다. 미미한 최루 가스 냄새와 작은 돌덩이들이 길 위에 남아있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시절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러나 아니다. 하지만, 난 한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몸매 해로운 소고기에 대한 인터넷상의 루머로 한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에는 더욱 중요한 현안과제들이 많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도덕적 타락은 위와 같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열려야 할 다른 부작용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는 외국 투자 자본의 대규모 철퇴가 한국 경제에 손상을 입힌 바를 본 적이 있다. 외국계 회사로서는 한국의 지역 정책 문제가 아직도 켈조러운 상황에 틀림없지만 외국계 자본의 철퇴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은 끊임없는 부패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외국계 회사에게 대한민국은 발을 들여놓기가 참 어려운 국가라는 인식 말이다. 이는 의사결정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기도 하는 누구와 학교 동문인지에 따라 빈번하게 이루어

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 업체들에게 참으로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나 자신 또한 사업 컨설턴트로서 이러한 문제에 자주 직면하고 있다. 한 마디로 몇몇 정치인을 비롯한 이들이 사익을 보호하려고 드는 동안 그들은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제적인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이제는 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선거 기간 동안 몇몇 비자금 문제에 휘말렸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부패 연루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다던 정권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던 현 대통령을 말이다. 이는 한국이 부정부패에서 한걸음 멀어졌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비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바를 보여주며 사실 이러한 면모가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이는 전반적인 체제적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변함 없을 것이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 업체들에게 참으로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나 자신 또한 사업 컨설턴트로서 이러한 문제에 자주 직면하고 있다. 한 마디로 몇몇 정치인을 비롯한 이들이 사익을 보호하려고 드는 동안 그들은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제적인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이제는 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선거 기간 동안 몇몇 비자금 문제에 휘말렸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부패 연루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다던 정권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던 현 대통령을 말이다. 이는 한국이 부정부패에서 한걸음 멀어졌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비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바를 보여주며 사실 이러한 면모가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이는 전반적인 체제적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변함 없을 것이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시 설

수능성적 공개, 공교육 활성화 계기 삼아야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실력 광주’의 명성을 전국에 떨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2005년부터 2009학년도까지 5년간의 수능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고교의 성적이 전국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한 것이다. 전남지역도 매년 1~4등급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232개 시·군·구 중에선 장성군이 전국 최고의 성적을 냈다. 비록 성적 자료를 1~4등급, 5~6등급, 7~9등급 등 3그룹으로 분류한 포괄적인 결과이긴 하나 이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광주경찰, 요즘 왜 이러나

지난 15일 초저녁 광주 도심 보석 가게에 침입해 수 억원대의 귀금속을 탈취해 달아나던 3인조 강도들 경찰이 코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놓쳤다. 최근에는 1주일 새 무려 5곳의 주민센터가 잇달아 털렸으나 범인 윤곽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사가 풀린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한심스럽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현시님

세상은 그 시대 생활과 환경이 반영되어 노래와 유행어가 된다. 386세대 때는 ‘바퀴 바퀴 모든 걸 다 바퀴’였다면 요즘 세간에는 ‘먼발인지 알지?’ ‘미쳤어 정말 미쳤어’가 유행 같다. 재물과 여성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들 때문에 눈이 어지럽고 귀가 시끄럽다. 천년바위만 제목의 대중가요가 있다. 남들에게는 유행가처럼 들릴 줄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도의 초입에 들어가는 초지 보살의 계승 같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기고



오정임

광주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광주일보를 통해 광주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너무 기쁜 마음에 펜을 들게 됐다. 2005년부터 2009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1~4등급 평균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는데 목에서 광주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기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참회의 등불을 밝히자

“동네 저편에 먼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생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생과 사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모르는 법부는 양귀비 같은 미녀와 고대광산 부귀로써 매일 밤을 함께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의 고향을 떠나니 지 오래되어 고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때문이다. 세계를 제패하여도 무엇인가 마음속 한곳이 채워지지 않던 영웅호걸인 알렉산더 대왕이 학자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라고 지시하였다. 학자들은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구한 논문 수백 권을 나타 들고 대왕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대왕은 ‘모두 입을 힘이 없으니 간단하게 정리하라.’고 명령하였다. 다시 학자들은 몇 년 동안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왕은 ‘내 수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광주교육 빛나는 성과에 찬사를

까지 했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됐으며, 아울러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신뢰감도 더욱 높아졌다. 최근 공교육 위기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광주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하니, 진화 지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광주교육이 이처럼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 시교육청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쾌거를 계기로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더욱 올라간다면, 2010년 입시에서도 실력 광주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농가 수익 없는 계란값 인상 유통구조부터 살펴라

얼마전 계란 값이 좀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다. 계란의 유통가격이 높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농가들의 수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금 특란 1개가 들어있는 것의 소비자 가격은 1천880원 정도이다. 그런데 특란 산지에서 1개당 158원정도 값을 받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농가들의 계란 수익가격은 그것과 많이 차이가 난다. 현재 농가들은 상인들에게 계란을 판매할 때 40원정도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형편이다. 농가들이 계란 1개를 판매할 경우 실제로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無等鼓

한 달이 넘도록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광고가 전파를 뒀다. 최근에 들어서야 그 광고의 의미를 알게 됐는데 KT 유선통합브랜드 룩의 광고였다. 그 기발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광고 기법을 티저 광고라고 한다. 티저는 원래 놀러 가는 사람, 뒷맛이 개고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광고에서 처음 회사명과 상품명을 밝히지 않고 구매의욕을 유발시키면서 서서히 밝히거나 일정 시점에 가서 일거에 배일을 벗기는 기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티저광고로 1981년 프랑스의 ‘아브니어’ 정당의 정치공고를 들 수 있다. 이 정당은 81년 8월 말 파리시내에 ‘9월 2일 뒷부분을 벗겼다’는 글귀와 함께 비키니 차림 여성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내걸었다. 이어 당일에는 뒷부분을 벗어 던진 사진과 함께 ‘9월 4일 앞부분도 벗겼다’는 글이 적힌 포스터를 붙여 파리시민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아브니어 정당은 드디어 4일에 뒤돌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

티저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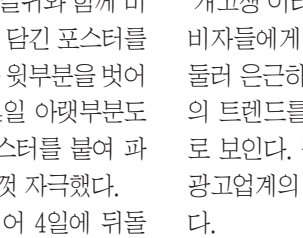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벚꽃나무 원산지는 제주도... 일본 떠올리지 말아야

15일자 독자투고란의 ‘벚꽃축제 말고 무궁화축제 하자’ 글을 읽고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벚꽃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면서 벚꽃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축제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벚꽃축제를 즐기면서도 일본의 상징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의구심을 들어 한다. 벚꽃나무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제주도라는 사실은 이미 DNA 분석을 통해 입증됐다. 광복 후 매일사상으로 일제의 잔재라 하

“한국은 곧 부정부패의 나라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부패가 사회에 끔찍할 정도로 광범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부패는 계속되는 스캔들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동시에 사회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 먼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정 및 뇌물 수수 사례는 젊은 세대를 정치에 점점 무관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건(필자 주: 탁신과-독재지향민주주의연합전선과 웨차치와 총리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매없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